



보도시점 2026. 10. 21.(수) 16:00 온라인·방송 2026. 10. 21.(수) 16:00

인공지능(AI)·로봇으로 진화하는 케이(K)-치안,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개막

- 피지컬 인공지능(AI)·로봇·정보보호 등 미래 치안기술 총망라… 국내외 245개사, 880여 부스 참가
- 31개국 해외 구매자(바이어) 82명 초청 수출상담회·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 사업(비즈니스) 프로그램 강화
- 국제공조협약체 총화·전문 학술회의(컨퍼런스) 40여 건 개최…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

국내 유일의 경찰청 주최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이 21일(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24일(토)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45개 기업이 880여 개 전시칸(부스)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장비와 다양한 안전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주)메세이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틱스로 여는 케이(K)-치안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첨단 치안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치안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틱스 ▲정보보호 ▲인공지능(AI)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등 미래 치안산업의 핵심 분야를 집중 조명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로봇, 치안 무인기(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보안 기술 등 다양한 첨단제품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치안기술을 소개한다.

국내 치안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31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구매자(바이어) 82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인천광역시 내부 영상망(CCTV) 구매상담회 ▲인공지능(AI) 순찰로봇 품평회 ▲수요 맞춤형 기업 방문(비즈니스 투어) ▲교정기관 구매상담회 ▲국민안전산업펀드 투자상담회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구매자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업 협력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순찰로봇 품평회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순찰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 등을 직접 평가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실제 치안 현장의 요구를 기업 기술개발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품이 경찰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치안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경찰청은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스캠) 등 신종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총회’를 처음 개최한다. 이와 함께 ‘SAFE AI Security Summit 2026’, ‘공공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포럼)’ 등 40여 건의 학술회의와 발표회(세미나)가 열려 치안·보안·공공안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경찰 체력검정 체험 ▲경찰장비 체험 ▲교통안전 체험 ▲경찰 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경찰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일상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치안 현장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내 치안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치안기술이 실제 현장에 도입되어 국민안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K)-치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은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4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police-expo.com) 또는 전시회 사무국(02-6121-634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6 미래치안 국제 청소년 짬막영화제’ 개최

담당 부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책임자	총경	이준호	(02-3150-1900)
		담당자	경정	최윤상	(02-3150-2605)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월 22일(목) 오후 2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A홀에서 「2026 미래치안 국제 청소년 짬막영화제(Jjalmak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Korea Police World Expo 2026)」과 연계해 열리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사단법인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가 주관한다. 시상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 본상 9편과 특별상 4편 등 총 13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총상금은 2,000만 원이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경찰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상과 200만 원이, 장려상에는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상과 100만 원이 주어진다. 특별상은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이사장상,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상,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상, 카카오디지털시민상 등 4개 부문으로, 각 5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된다.

행사는 수상작을 상영하는 1부 시사회와 2부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시사회에서는 초·중·고 부문별로 본선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무대에서 상영한다. 경찰악대의 식전공연과 합창단의 개막공연이 함께 어우러진다. 부문별 대표 청소년 6명이 무대에 올라 작품에 담은 생각과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누는 ‘숏폼 토크’도 마련된다.

2부 시상식에서는 케이(K)-팝 댄스 축하공연과 심사총평에 이어 특별상과 부문별 본상 시상이 진행되며, 수상자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영화제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경찰청 박현수 미래치안정책국장은 “90초라는 짧은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내기까지 청소년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지금, 새로운 기술로 어떤 미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청소년들의 생각에 경찰도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치안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총경	백혜경	02-3150-2041
		담당자	경정	이준행	02-3150-2141